

## 석유제품 수출시장 현황과 전망

백영찬 SK증권 리서치센터 과장(석유화학/정유담당)

2009년 석유제품 수출 현황 : 수출물량은 유지되었으나 수익성은 하락

2009년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수출의 경우 물량기준으로는 전년수준을 유지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약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석유제품 수출물량은 333.5백만배럴로서 전년의 333.6백만배럴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석유제품 수출금액은 226억달러가 예상되어 2008년 369억달러대비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수출금액 감소 배경은 첫째,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하락, 둘째, 판매물량 성장 정체 때문이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2009년 세계 석유수요는 10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어려운 수출환경이 예상되었으나 국내 정유사들의 수출물량은 2008년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점은 나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2분기부터 국내 정유사들의 석유사업부문 실적은 영업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Global 석유수요가 감소된 상황에서 수출물량을 2008년 수준으로 유지하다보니 수익성 측면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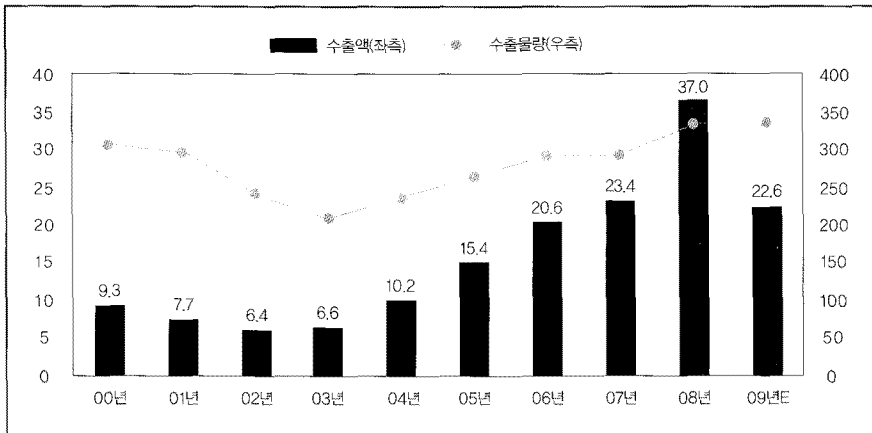
제품별 판매비중을 살펴보면 휘발유 비중은 증가한 반면 경유와 B-C유 비중은 감소하였다. 산업용 경유 수요위축과 재고감소로 인해 경유 수출물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B-C유의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가동률 축소와 고도화설비 증설에 따른 원료수요 증가로 수출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판매비중에서 대중국 수출비중은 전년대비 2%p, 대싱가폴 비중도 4.3%p나 하락하였다. 2009년 상반기 중국의 석유수요 감소와 재고감소로 인해 중국 및 아시아지역 수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다

2010년 국내 석유제품의 수출시장 수익성은 역대 공급완화와 재고 감소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으로 금년보다 호전될 전망이다. 국내 정유사들에게 2009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나 2010년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과거 2005~2007년과 같은 Golden Age 때로 회귀할 수는 없을 것이다. Global 공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인 원유공급선 확보,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고도화석기 등 기술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스러운 점은 금년 하반기부터 중국의 월별 석유제품 수요가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고 있어 대중국수출 비중은 점진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림1〉 국내 석유제품 수출 추이

(단위:십억\$, 백만배럴)



〈자료〉한국석유공사, SK증권 추정

〈표1〉 국가별 수출물량 및 비중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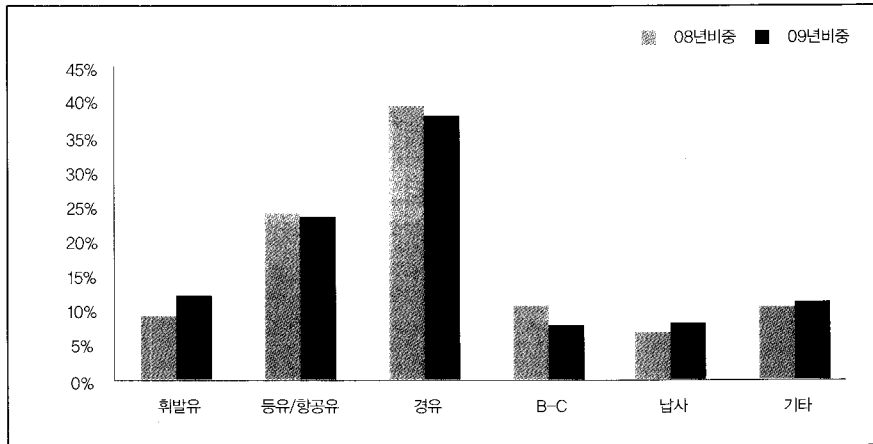
(단위:천배럴)

구 분	중국	싱가폴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칠레
2008년 판매물량	95,058	91,358	35,807	16,985	14,656	12,347
2008년 비중	28.5%	27.4%	10.7%	5.1%	4.4%	3.7%
2009년 판매물량	73,059	63,701	24,525	14,331	17,511	7,281
2009년 비중	26.5%	23.1%	8.9%	5.2%	6.3%	2.6%

〈자료〉한국석유공사

〈주〉2009년 판매물량과 비중은 1~10월까지 기준

(그림2) 제품별 판매비중 추이



(자료)한국석유공사


(주)2009년 판매물량과 비중은 1~10월까지 기준

### 2010년 수출시장 전망 : 외형증가 + 수익성 회복

2010년 국내 석유제품 수출시장의 외형은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금액과 물량 모두 금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인상, 둘째, 경기회복을 바탕으로 세계 석유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0년 국제유가는 리서치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2009년 평균유가대비 배럴당 15~20달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던 세계 석유수요는 2010년에는 전년대비 1.8%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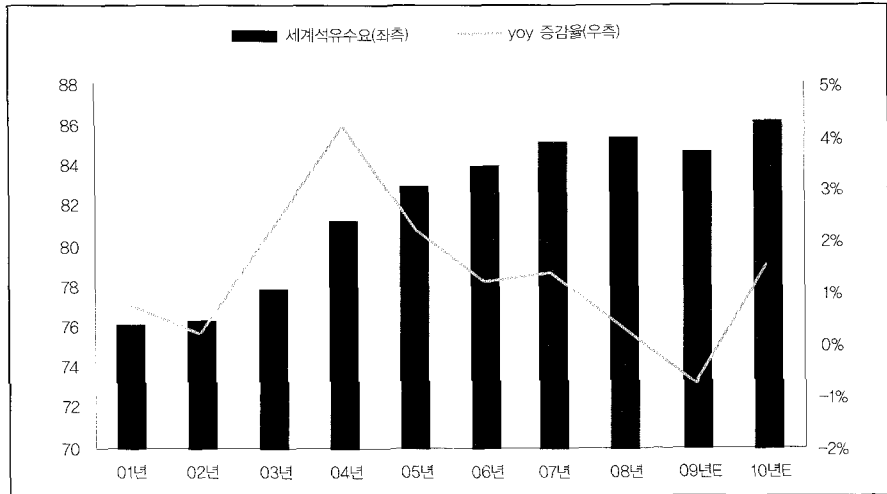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세계 석유수요 증가로 2010년 석유제품 수출금액과 물량은 2009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정유사입장에서는 수출금액과 물량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수출시장의 수익성도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된다. 수익성 회복의 배경은 첫째, 역내 신규 정제설비 증설규모 축소에 따른 공급완화, 둘째, 경유 재고감소에 따른 경유 크랙마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9년 수출시장의 수익성악화는 한마디로 정제마진 하락에 기인한다. 금년 정제마진의 급락은 수요는 감소한 반면 신규공급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아시아지역 신규 정제설비는 241만b/d로서 공급충격이 가장 심한 시기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0년 역내 신규공급 규모는 92만b/d로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정제마진 상승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세계 경유 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상반기에는 세계 경유 재고수준이 과거 5년치 평균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 OECD 원유재고가 이미 선형하여 감소하고 있고, 둘째, 국가별 산업

생산성이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10년 국내 석유제품의 수출시장 수익성은 역내 공급완화와 재고 감소에 따른 정제마진 상승으로 금년보다 호전될 전망이다. 국내 정유사들에게 2009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2010년이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과거 2005~2007년과 같은 Golden Age시대로 회귀할 수는 없을 것이다. Global 공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인 원유공급선 확보, 해외시장의 적극적인 개척, 고도화설비 등 기술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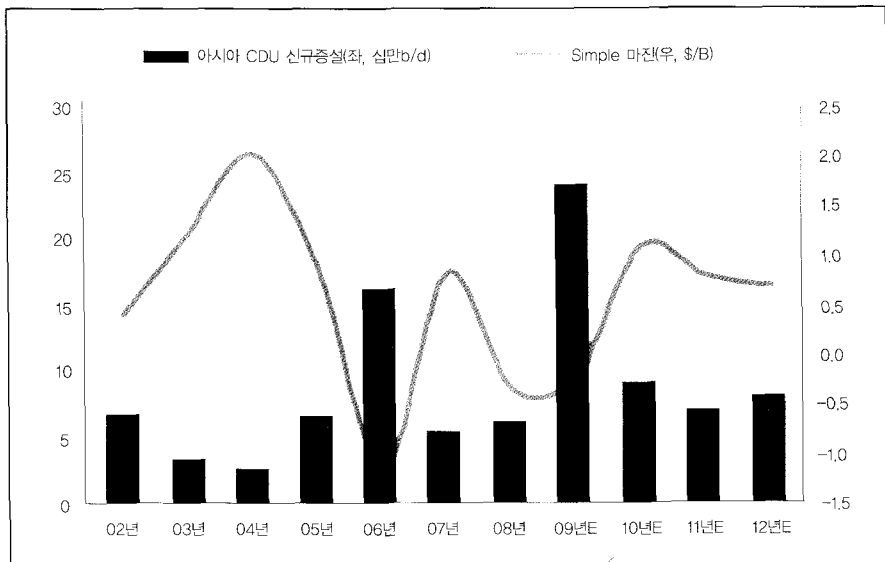
〈그림3〉 세계 석유수요 추이 및 전망

(단위:백만b/d)



〈자료〉IEA, EIA, SK증권 정리

〈그림4〉 역내 신규정제설비 증설과 단순마진 전망



〈자료〉SK증권